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설 명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설명절 오미크론 대유행 분수령

도, 비상상황 대비 의료기관 풀가동  
우세종화 초입기, 위중증 억제 관건  
귀향·모임자제 호소, 백신접종 독려  
대목장 소비축진 등 민생안정도 집중

글·사진=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도가 올 설 명절에도 연휴를 반납한 제 방역체계를 풀가동 하겠다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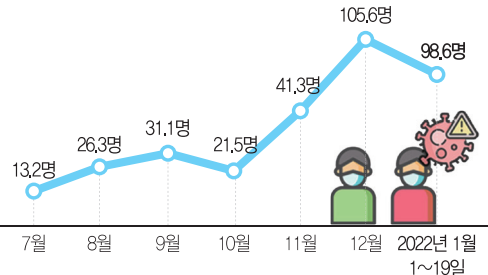
전북과 광주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설 연휴를 전후해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급증하면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도내 선별진료소 28곳 모두 휴일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귀성객이 몰리는 전주 고속터미널 인근에는 임시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설치된다. 전용 병

■ 전북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상 또한 연휴 직전까지 280개 가량을 추가 확보해 모두 1,629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미크론 감염자도 재택치료가 허용된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해 권역별로 그 관리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택치료 대상은 지금보다 약 2.5배 많은 최대 900명 규모로 잡았다. 이경우 병상 가동률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다.

권역별 재택치료 관리기관은 △군산·완주= 군산의료원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남원의료원 △정읍·김제·고창·부안= 동군산병원 △익산= 익산병원 △전주 덕진구= 대

자인병원 △전주 완산구= 전주다솜아동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조 부지사는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낮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설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도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귀성과 귀향 자제도 당부했다. 불가피하다면 백신 3차 접종과 자가용 이용하기, 고향에선 짧게 머무르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북도는 방역과 더불어 민생 챙기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전북산 성수품 판촉 활동과 소외계층 나눔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2년째인 20일 0시 기준 도내에선 138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는 1만1,526명으로 늘었다. 이중 123명이 숨졌다.

특히,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이후 아흐레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검출율은 1월 3주차(1.9~15) 확진자 기준 약 29%, 그 연관자 포함시 6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늦장마 벼 병해충 ‘농업재해’ 인정

농식품부, 이상기후 탓 결론  
도내 2만여농가 복구비 지원

〈속보〉작년 가을 늦장마 속에 전북 쌀농가를 강타한 벼 병해충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돼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본지 10월6일자 1면 보도〉

〈관련기사 3면〉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제의 벼 병해충과 이상기후간 연관성을 조사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결론을 냈었다.

따라서 피해 농가들은 곧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기상 문제가 아닌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2014년 전남을 휩쓴 이삭도열병 파동에 이어 두 번째다.

복구비 지원대상은 전체 피해 농지 4만 8,274ha 중 경미한 사례(피해율 30% 미만)를 제외한 4만4,254ha가 포함된다. 지원액은 총 331억 원대로 추산됐다.

다만, 경미한 피해 사례는 전북도와 사

군이 별도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2만2,000여 농가에 달하는 피해 농민들은 모두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쌀값 하락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가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품종 다변화를 위한 정부 수매품종 확대나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수확기 직전 발생한 문제의 병해충은 도내 전체 논벼 약 40%를 휩쓸어 큰 피해를 안겼다. 벼를 말라 죽이는 이삭도열병이 가장 심각했고 세균벼알마름병과 깨씨무늬병 피해도 상당했다.

농민단체와 정관계는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늦장마 탓, 즉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 방제와 효과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농업재해 인정을 촉구해왔다.

/정성학 기자



지자체 10월말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벼 병해충 피해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그 실태를 청취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 설 명절 성수품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

성수품 구입 비용 평균 23만 3,805원  
전통시장, 대형마트 대비 13.8% 저렴

설 명절을 약 2주 앞둔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명절 성수품을 모두 구입할 경우 총비용은 평균 23만3,805원으로 지난해 대비 0.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전주시역 백화점 1곳, 대형마트 6곳, 중소형마트 14곳, 전통시장 3곳을 포함 총 24곳의 설 제수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4인 가족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이 20만9,385원으로 대형마트 대비 13.8%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별로 보면 백화점이 30만3,024원, 대형마트 24만2,964원, 중소형마트 24만2,897원, 전통시장 20만9,385원으로 집계됐다.

/박상래 기자

2면 국내 오리과 철새 82% 전북에 등지… ‘AI 비상’

6면 전주 옛 도심에 ‘여행자도서관’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참여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

